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, 2/4분기 개인생명보험 신규판매 20% 감소

□ 2009년 2/4분기 미국 개인생명보험 신규판매가 전년동기대비 20% 감소했다고 미국 생명보험기관 LIMRA는 발표함.

o 개인생명보험 신규판매는 1/4분기에도 26% 감소한 바 있으며, LMIRA는 지난 6개월간의 매출감소가 1942년 이후 최악이라고 밝힘.

o 신규판매가 가장 크게 감소한 종목은 변액보험으로 2/4분기에만 약 50%가 감소했으며 지난 6개월 간 5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, 유니버셜보험은 1/4분기 27% 감소에 이어 2/4분기에도 28% 감소하면서 4분기 연속 두 자리수 감소세를 이어감.

o 반면 종신보험은 1/4분기 4%, 2/4분기 3%감소에 그쳤고, 사망보험 또한 2/4분기 3% 감소에 그치는 등 보장성보험은 상대적으로 선전했으며, 보장성보험 비중이 큰 보험사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고 LIMRA는 밝힘.

o 이러한 개인생명보험의 부진은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지만, 고액보험 가입 성향이 높고, 2008년 기준 전체 신규판매의 50%를 차지하는 노년층의 보험가입이 감소했기 때문임.

□ LIMRA는 2/4분기 실적이 1/4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되긴 했으나 신규가입이 가장 크게 감소한 변액보험의 회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.

o 2/4분기 40%의 회사들이 전년동기대비 매출증가를 나타내는 등 1/4분기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나, 과거 2000년의 경기침체 이후 다른 투자상품은 수요가 회복된 반면, 변액보험은 예외였으며 이번에도 변액보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.

o 회사별로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링컨(Lincoln)의 신규판매가 25% 감소하였고, 구제금융 지원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젠워스(Genworth)의 경우 42%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o 향후 개인생명보험 신규판매는 2009년 두 자리수 감소를 기록한 후, 2010년에는 두 자리수 증가하면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함.

(Insurance News Net 외, 8/31)